

등록번호	수산자원연구소-2585
등록일자	2019. 04. 05.
결재일자	2019. 04. 05.
공개구분	대국민 공개

연구사	수산자원조 성담당	지방서기관		
황인기	이의진	2019. 4. 5. 신청만		
협조자				

수산자원 회복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2019 점농어 종자 방류 결과보고



2019년 점농어 종자 방류 결과보고

어린 점농어 우량종자를 자체적으로 생산하여 점농어 서식장인 강화도 해역에 방류함으로써 지역 어민들의 소득 증대와 불법 어업 및 남획, 환경오염 등으로 감소하고 있는 점농어 자원량 증대에 기여코자 함.

I 방류 개요

- 품종 및 방류량 : 어린 점농어 19만 2천미
- 방류일시 : 2019. 4. 1.(월) 13:00
- 종묘크기 : 전장 7cm 내외
- 방류해역 :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황산선착장 지선
* 주소 :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1331-20
- 운송방법 : 활어차(5톤) 4대
- 방류방법 : 선착장 육상방류

II 방류 일정

시 간 별	추 진 일 정	비 고
08:00 ~ 10:00	활어차 집결 및 상차(수량파악 병행)	인천수산자원연구소
10:00 ~ 12:00	이동(연구소 ⇒ 강화군 황산선착장)	활어차(5t)×4대 참석자 개별 이동 집결
13:00 ~ 14:30	방류행사실시	
14:30 ~ 17:30	이동(강화군 황산선착장 ⇒ 연구소) 및 해산	

Ⅲ 표본측정 및 방류수량 검수

○ 표본 측정 결과

순번	전장 (cm)	무게 (g)	전장 (cm)	무게 (g)	전장 (cm)	무게 (g)	전장 (cm)	무게 (g)	전장 (cm)	무게 (g)
1	6.1	3.05	7.7	3.52	8.0	5.06	6.4	2.32	6.5	2.44
2	7.0	3.70	7.5	2.69	6.0	2.02	6.6	2.30	6.8	2.79
3	7.1	3.63	7.5	4.33	7.5	3.98	7.1	2.63	6.5	2.82
4	6.6	3.20	7.6	3.99	6.4	2.54	7.5	3.47	6.6	2.49
5	6.8	2.71	7.1	2.48	6.3	2.79	7.1	2.28	7.2	2.67
6	6.9	3.24	7	3.04	6.8	3.28	7.3	3.99	7.5	2.81
7	6.2	2.95	7.7	2.18	6.3	2.00	6.9	3.59	8.1	3.73
8	6.9	2.62	7.1	3.15	6.9	3.00	6.2	2.70	7.9	3.30
9	7.2	2.92	7.5	3.06	6.2	2.19	6.3	3.08	7.2	2.42
10	7.0	3.01	7.9	2.16	7.1	3.08	6.6	3.63	7.8	3.54
평균	6.78	3.103	7.46	3.06	6.75	2.994	6.8	2.999	7.21	2.901

최 소	6.0cm	2.0g
최 대	8.1cm	5.06g
평 균	7.0cm	3.0g

○ 방류수량 검수

계량 회수(회)	총무게(kg)	개체당 평균 무게(g)	방류수량(마리)
138	576.16	3	192,053

IV 방류 해역도

○점농어 방류 해역



V 방류 사진 및 신문 보도자료

○점농어 방류 사진



○점농어 신문 보도자료

기호일보

2019년 04월 02일 (화)
종합 01면



황금어장을 꿈꾸며... 인천시 수산자원연구소와 강화군 어민들이 '제8회 수산인의 날'을 맞아 1일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황산선착장 일대에서 어린 점농어 10만여 마리를 방류하는 행사를 가졌다. 어민들이 수통을 통해 바다로 떠나는 점농어를 바라보고 있다. <관련 기사 3면> 이진우 기자 lijw@kohoilbo.co.kr

인천일보

2019년 04월 02일 (화)
종합 02면



수산인의 날인 1일 강화군 황산포선착장에서 열린 '점농어 치어 방류 행사'에서 점농어가 바다로 들어가고 있다. 잘 자라라, 점농어아 이날 인천시 수산자원연구소는 강화도 인근 바다에 지난해 11월 부화한 점농어 치어 10만 마리를 방류했다. /8인 기자 photo@incheonilbo.com

기호일보

2019년 04월 02일 (화)
종합 03면

인천 수산자원연구소, 강화서 어린 점농어 10만 마리 방류

인천시 수산자원연구소가 '제8회 수산인의 날'을 맞아 어린 점농어 10만여 마리를 방류한다. 수산자원연구소는 지난해 11월 부화한 점농어 10만 마리를 강화군 길상면 황산선착장 지선에 방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방류한 점농어는 크기는 7cm 안팎의 질병 검사를 거친 우량 종자이다. 점농어는 서해해역에 서식하는 대표 어종이다. 서해 중부해역과 강화해역에 대형어들이 출현하기 때문에 낚시철에 특히 주목받는다. 인천수산자원연구소는 2005년부터 점농어 종자 116만 마리를 인천 앞바다에 지속적으로 생산해 방류해왔다. 올해에는 꽃게 등 총 7종의 345만 마리의 수산종자를 생산할 계획이다.

해역과 대형해역, 중구의 삼목해역 등 주요 어업이 이루어지며 서식에 적합한 지역에 방류한다. 연구소 관계자는 "이번 점농어를 시작으로 꽃게 등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경제성 어종 위주로 방류할 예정이다"라며 "수산자원 증식과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고부가가치 품종과 양식기술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점농어는 서해해역에 서식하는 생선인 종자들은 웅진군의 연평 김유리 연평기자 ky@kohoilbo.co.kr

경기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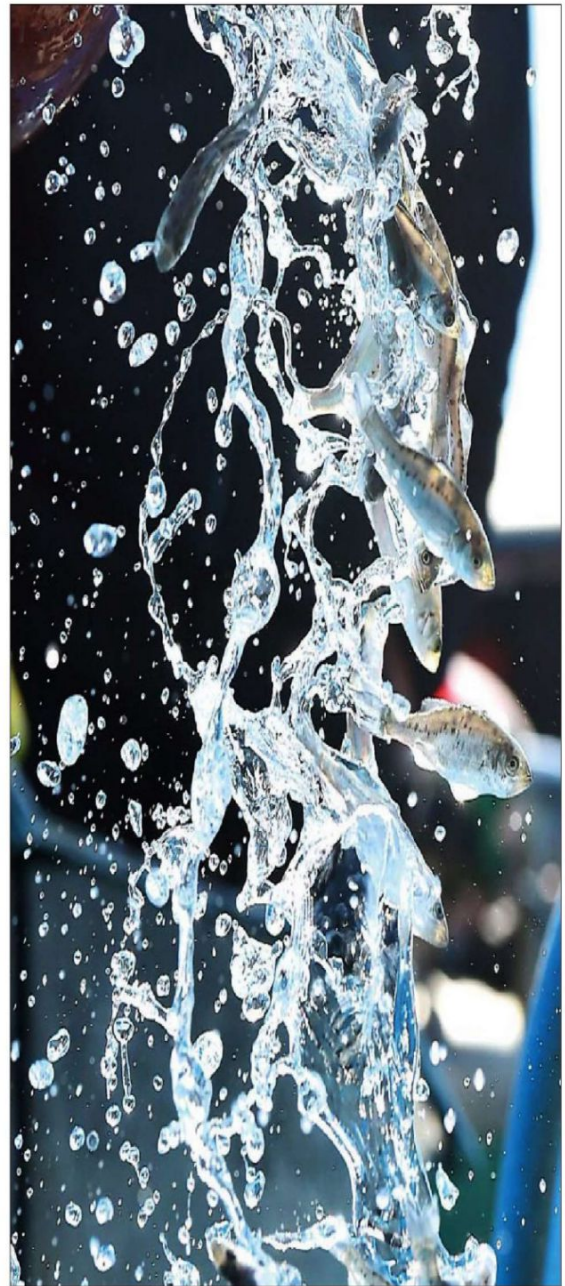
2019년 04월 02일 (화)
종합 01A면



수산인의 날 치어 방류... "점농어아 잘 자라라" '제8회 수산인의 날'을 맞아 1일 오후 강화군 길성면 황산선착장에서 어민이 어린 점농어를 방류하고 있다. 조주현기자

중부일보

2019년 04월 02일 (화)
종합 01A면



큰물로 향하는 치어들 수산인의 날인 1일 인천시 강화군 황산선착장에서 점농어 치어가 방류되고 있다. 이날 방류한 점농어 치어는 시 수산자원연구소가 수산자원 회복, 어민소득 향상을 위해 생산한 우량종자로 10만 마리를 방류했다. 윤상순기자